



그 여자들의 죄

TV드라마 속, 뒤틀린 여성 캐릭터

박말숙

1. 나는 질투한다, 여자를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가 부럽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잘나가는 여자를 보면 속이 막 꼬인다. 가령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있는데, 아나운서로서의 유명세 때문에 그녀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 때. 그녀는 성공을 발판으로 또 성공한다. 나는 남자들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할지도 모르는 일에 여자들이 그랬다면 더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 현실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성공적인 이력이 없는 나에 대한 위로였다. 그러나 나와 동성인 여자의 사회적 성공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다른 방어기제를 찾는다. 내 인생이 뭔가 억울한데, 그게 뭘까?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길을 걸을 때 성공한 그녀들은

어떤 규칙 위반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 그녀들의 성공은 내가 가족을 위해 내 시간과 힘을 바칠 때 그녀들은 그 시간과 힘을 자신을 위해 투자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정도의. 잘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내 인생이 너무 뒤쳐졌다 느껴질 때, 이웃 아줌마들끼리 그런 농이라도 해보지만 위로가 되기보다는 씁쓸함이 더 많이 남는다.

그런데 ‘TV드라마’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의 이러한 허섭한 자위의 논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준다. 그것이 TV드라마가 여성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인 지도 모르겠다. 남녀 간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소위 ‘잘난 여자’들은 높은 학벌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의 대상인 여자들은 대체로 드라마의 악역들이며, 이기적이고 성격 파탄 직전의 나쁜 캐릭터를 입고 있다. ‘잘난 여자’가 ‘나쁜 여자’의 캐릭터를 입고 나오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게 눈에 띈다. 많은 여자들이 ‘잘난 여자’는 ‘나쁜 여자’라는 드라마적인 공식에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주변의 여자들이 모이면 드라마 속의 독하고 이기적인 ‘잘난 여자’를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린다. 한마디로 “그렇게 독하니까 성공을 한 거야”로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씁쓸하다. 세상의 모든 잘난 여자가 다 그렇게 나쁜 여자가 되어야 하나? 그러한 드라마적인 설정은 어쩌면 여성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 될 것이다.

2. 잘난 여자 ≙ 나쁜 여자의 전형

잘난 여자라서 나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등장인물은 셀 수 없이 많지만, MBC 주말드라마 <깍두기>의 서지혜, KBS 일일드라마 <미우나

고우나>의 황미혜, SBS 주말드라마 <황금신부>의 옥지영이 떠오른다. 종영한 지 오래되지 않은 드라마로서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볼 수 있는 드라마였다.

<깍두기>에 나오는 나쁜 여자 서지혜. 서지혜는 MBS 방송국의 아나운서였다. 그녀는 방송국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PD 정동진과 결혼을 하고 곧 딸 하숨이를 낳는다. 그런데 회사에서 서지혜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준다. 남편 정동진은 갓난아이를 두고 엄마가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이혼을 하고 서지혜는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서지혜는 실력 있는 유명한 방송 진행자로 성장한다. 서지혜는 해외연수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황금신부>에 나오는 나쁜 여자는 옥지영이다. 옥지영과 강준우는 대학시절 애인이었다. 대학 졸업 후 지영은 MBA과정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만, 가난한 집안의 아들인 강준우는 한국에 남는다. 옥지영은 미국 유학 중에 대규모 식품 회사 사장의 아들인 김영민과 사랑하게 된다. 옥지영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강준우에게 이별을 통고한다.

<미우나 고우나>에서는 나쁜 여자의 한 사람으로 황미애가 등장한다. 그러나 황미애는 서지혜와 옥지영과 같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잘난 여자가 아니다. 어쩌면 몹시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전형일지도 모른다. 그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따른다.

황미애는 남편 오달현이 연극을 하느라고 전세비까지 빼서 시작한 사업을 망치고 밑천까지 흘랑 잃어버리자 오달현과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간다. 황미애는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꿈인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방송국 주변을 오가며 길을 찾는다.

서지해, 옥지영, 황미애는 자신의 삶의 성취와 가정이라는 두 가지 중에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녀들에게 자신의 삶과 가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 그 결과로 그녀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가정과 모성을 박탈당한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결과로 그녀들이 받아야 하는 벌은 정당한가? 아니,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 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일까?

3. 그녀들을 위한 변론

그런데 <깍두기>의 서지해와 <황금신부>의 옥지영과 <미우나 고우나>의 황미애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지해 대신 남편 정동진에게 해외연수의 기회가 왔다고 가정해보자. 주변 인물들은 해외연수의 기회가 온 것을 축하하고 만약 해외연수 가기에 걸림돌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치우려고 애쓸 것이다. 한국의 가족에는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나 서지해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을 때, 서지해는 시집식구들의 도움도 남편의 이해도 전혀 받지 못한다. 서지해와 정동진이 이혼을 한 뒤 딸 다숨은 정동진의 집 어른들에 의해 많은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한 뒤에도 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시집이라면 서지해가 해외연수를 가게 될 때 아이를 잘 맡아 키워주겠노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서지해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에서 오달현은 가족 부양의 책임자였지만 전혀 자기 책임을 지지 못했고 가족이 살 공간조차 잃어버리게 했다.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황미애가 선택한 카드가 이혼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결혼파탄과 이혼의 책임 소재는 남편인 오달현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혼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황미애다.

<황금신부>의 옥지영을 보면 아직도 결혼 전의 연애 사실이 이렇게 한 여자의 족쇄가 되는 시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옥지영은 결혼 전 연애 때문에 파경을 맞게 된다. 옥지영에게 결혼 전의 연애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그러나 결혼 전의 연애에 그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옥지영의 남편 김영민과 시집식구들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인격자들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뚜렷하게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제외한 욕망추구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남성이 더 큰 목표나 더 높은 자아성취를 향해 달려가면 그것은 사회 공공의 가치추구로 인정되고 격려되고 권장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적 자아성취 욕구는 아직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향해 갈 때 육아와 가정돌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어울려 세워져야 함에도, 여성에게 자기 삶과 자신의 가정은 서로 배타적이다. 여성이 자아성취를 선택하면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세 드라마는 보여준다.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현실과 세 드라마의 공통점이다. 세 드라마 속의 여자들에게 만약 육아와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여지만 있었어도 그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와 가족이 여성에게 얼마나 인색한가를 볼 수 있다.

세 드라마는 이러한 현실을 드라마 속으로 그대로 옮긴다. 그러나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눈감고 그 현실에서 버둥거리는 여성들을 엄하게 꾸짖는다. 정말 무서운 것은 드라마가 현실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성억압을 더욱 미화하고 옹호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점이다.

4. 캐릭터의 힘

자신의 자아성취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희생된 데 대해서 나쁜 여자라고 대놓고 비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내 그녀들을 나쁜 여자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다. 거기에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계략이 있다. 드라마에서는 그녀들의 정당한 자기성취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잘난 여자들의 캐릭터를 나쁘게 설정하고 잘난 여자들에게 주로 악역을 맡김으로써 그 목적을 이룬다. 그녀들이 원래 나쁘기 때문에 그녀들의 삶의 방법도 나쁘다고 말이다. 잘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악한 여자들이 잘난 여자가 된다는 공식이다. 그러니 실존적으로 잘난 여자는 나쁜 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녀들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사실 몹시 자기중심적이다. 하숨과 함께 지내고 싶은 서지해는 길 잃는 하숨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재운다. 서지해의 시집식구들과 유은호는 마음을 졸이며 밤새 하숨을 찾는데 그런 시집식구들에게 서지해는 한 통의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황금신부>의 옥지영에게는 강준우와의 이별 사건이 원죄다. 강준우가 미국에 있는 옥지영을 찾아왔을 때, 옥지영은 강준우가 치한이라는 오해를 받아 미국경찰에 체포되게 했고, 강준우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미우나 고우나>의 황미애는 연예기획사에서 돈을 요구하자 조카 지영

을 배신한 옛 애인 나선재의 어머니가 위로금조로 주는 돈 삼천만 원을 몰래 받아 챙기고 그것을 연예기획사에 갖다 준다.

서지해도 옥지영도 황미애도 바람직한 캐릭터는 아니다. 그녀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모질고 때로는 거칠다. 한마디로 못된 여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자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는 여자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러한 나쁜 캐릭터를 부여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드라마를 만드는 이들 자신이 성공한 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 나쁜 여자들을 더 선명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그 옆에는 그녀들과 대조되는 착한 여자들을 세워둔다. 그들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순응하는 캐릭터들이다. 착한 여자들은 잘난 여자들의 나쁜 성품을 증명하는 데 한층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착한 여자는 대부분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나쁜 여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자다. 그녀들은 가족과 주변인물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이다.

<깎두기>의 유은호는 서지해가 정동진과 재결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데도 서지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지해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오고 서지해를 간호한다. 그런 착함의 대가로 유은호는 정동진과 결혼하게 되고 서지해의 딸 하숨이까지 다 얻는다.

<황금신부>의 진주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남편의 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다. 그러나 진주는 남편 강준우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남편을 떠나지 않고 그에게 지극한 사랑을 줌으로써 강준우가 공황장애를 극복하도록 만든다. 진주는 자신의 남편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회복시키고 남편과 시집식구의 사랑도 얻는다.

<미우나 고우나>의 쏘냐도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여성이며 황미애의 전 남편 오달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쏘냐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오달현의 아들 찬이를 구하면서 자신의 발을 다친다. 쏘냐는 결국 오달현의 사랑을 얻고 오달현과 함께 찬이를 키우게 된다.

유은호와 진주와 쏘냐와 같은 착한 여자의 캐릭터에는 ‘희생을 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라’는 은근하지만 강력한 억압이 숨어 있다.

나쁜 여자들은 자기 인생을 찾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착한 여자들은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 산다. ‘희생’이라는 요건이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를 가름한다. 드라마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여자에게 나쁜 캐릭터를 부여해서 결국 희생하지 않는 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여자들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쁜 캐릭터를 입히는 것은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감성은 이성보다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반응하고,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세뇌된다. 캐릭터 때문에 점점 사태의 본질은 흐려진다.

5. ‘잘난 여자’도 ‘좋은 여자’면 안 될까?

드라마의 핵은 갈등이고 갈등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선인과 악인의 대치다. 한국 드라마 가운데서, 한 남자를 둘러싼 삼각관계의 남녀관계에서 등장하는 두 여자는 대개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로 이분된다. 나쁜 여자는 보통 좋은 학벌과 든든한 집안배경과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착한 여자는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쁜 여자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착한 여자는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그 선함 때문에 끝내 복을 받고 나쁜 여자들이 가지고자 했던 것들도 다 차지한다.

문제는 유독 드라마에서는 잘난 여자들이 왜 그렇게 악한가 하는 것이다. 드라마는 잘난 여자들에게 이기적이고 악한 캐릭터를 부여해서, 잘난 여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자아성취 욕구가 강한 여자를 나쁜 여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여성의 존재가치가 마치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여성의 자아성취와 사회적 성공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잘난 여자라는 말은 그 여성이 잘난 여자가 되기까지 겪어온 노력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잘난 여자라는 말은 사회전체가 희생을 요구하는 그 커다란 억압에도 맞설 정도의 강한 이기심이 있음을 비꼬는 말이다.

이런 드라마적인 세계관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남성위주인지를 보여준다. 드라마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여성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유교적 전통에 아직도 닿아 있다. 특히 TV드라마는 관객과 호흡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시청률만큼 관객도 드라마의 남성위주적인 세계관과 희생적인 여성의 삶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관객에게 수용된다고 해도 적어도 이 시대에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계관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 ‘잘난 여자’ 곧 ‘나쁜 여자’의 드라마는 잘난 여자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착한 여자에게는 희생을 더욱 강요하는 억압이 숨어 있다.

적어도 21세기에 사는 여성이라면 자아성취와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TV드라마가 이런 여성의 고민을 배려한다면 적어도 잘난 여자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를 이기적이고 나쁜

캐릭터로 입히는 이 무신경하고 습관적인 설정에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TV드라마, 그러나 드라마에 들어가 보면 드라마는 여성문제 또는 문제적 여성 캐릭터의 종합선물세트 같다. 드라마를 만드는 이들이 좀 더 진지하고 세심하게 여성 등장인물, 여성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해준다면 좋겠다.